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2023. 4. 18.(화) 11:00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구미시의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 전주시립도서관꽃심

◇ 책기둥도서관

기획행정위원회 비교견학

- ◆ 책기둥도서관 및 전주시립도서관꽃심 시설과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여 개관 30년이 경과한 우리시립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비교·점검하고자 함

I 견학개요

- 일 시 : 2023. 4. 17.(월) 09:30 ~ 18:00
- 장 소
 - 책기둥도서관(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 전주시립도서관꽃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 인 원 : 19명 (의원 10, 직원 9)
- 방문내용 : 전주시립도서관꽃심 및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현황 벤치마킹

II 참석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성 명	연번	소 속	직	성 명
1	구미시 의회	위원장	이명희	11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김차병
2		의원	박교상	12		전문위원	박영훈
3		"	김춘남	13		전문위원	이재환
4		"	김재우	14		직원	문수진
5		"	김낙관	15		"	서혜인
6		"	김근한	16		정책지원관	김강민
7		"	신용하	17	구미 시립중앙 도서관	도서관장	이선임
8		"	소진혁	18		관리팀장	양희진
9		간사	김원섭	19		사서팀장	류정숙
10		의원	정지원				

Ⅲ 일반현황

□ 전 주 시 립 도 서 관 꽃 심

- 위 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 규 모
 - 부지면적: 3,397㎡
 - 층 수: 지하1층/지상4층
 - 연 면 적: 4,042㎡
 - 용 도: 도서관
- 사업기간: 2014. 10. ~ 2019. 8. ※ 정식개관 : 2019. 12. 20.
- 사 업 비: 10,300백만원 (국4,000 / 시7,300)
- 주요시설 * 전북 최초 학습공간(열람실) 없는 도서관
 - 1층 (어린이자료실)
 -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도서, 잡지 등
 - 보드게임, 한글 블럭판, 퍼즐 등 놀이 콘텐츠 제공하는 야호 책 놀이터
 - 2층 (종합자료실)
 - 일반자료, 디지털자료, 정기간행물, 신문, PC이용, 자료복사 등
 - 전자정보코너: 이용자 PC 5대, 검색단말기 4대
 - 3층 (우주로1216)
 - * 영어 청소년(Teenager)과 사이(Between)의 합성어인 트윈세대(12~16세) 전용공간
 - 톡톡존(소통), 쿵쿵존(발산), 쓱쓱존(창작), 곰곰존(사색), 남남존(휴게공간)
 - 동영상제작, 재료바, 트윈컬렉션, 전시, 공연 등
 - 부대시설: 3층 강의실, 4층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 1층 어린이자료실



○ 2층 종합자료실



○ 3층 우주로1216



쓱쓱존 손과 도구가 만나 상상을 실현하는

- 동영상을 보고 함께 만들어보아요
- 영상 편집용 컴퓨터, 기프트가 있는 쓱쓱디오
- 두엇어는 단둘이도어요



투투존 트윈세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

- 우주로1216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곳
- 작품 전시 및 리운지
- 놀이 놀음 가법거, 사물함



쿵쿵존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며 성장하는 공간

-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풍경무대**
- 와상있는 콘텐츠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풍경계단**
- 자유로운 수다와 휴식을 위한 **잠가공간**



곰곰존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탐색하는

- 초사한의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슈식공간? 굿넷**
- 노란노란 보잉공간 **공방&공실**
- 코스믹한 잠가공간



○ 4층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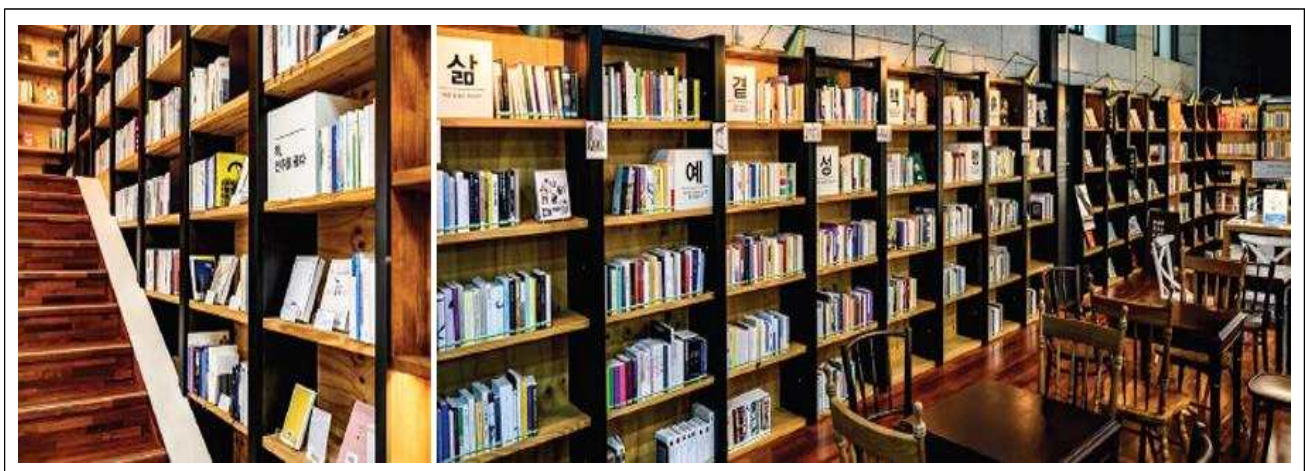


□ 책기둥도서관

- 위 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서노송동, 전주시청)
- 전주시청 로비의 책기둥 도서관은 전주시 독서생태계 상생과 구축을 위한 큐레이션 도서관으로 관공서 이미지 탈피와 도서관 기능 중 열람의 기능을 살려 로비 공간을 머무는 동안 독서 및 휴식, 만남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조성
- 1층(월드, 전주, 시민, 출판사, 갤러리, 생일, 어린이 책장 등)



- 2층(전주, 동네책방 라이브러리)



IV | 보고서 의견

- 전주시립도서관꽃심은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 12월 정식 개관, 국비30억 원, 시비73억 원(총103억 원)이 투입된 전북 최고규모의 도서관임. 전북 최초 열람실 없는 도서관으로 삭막하고 조용한 기존도서관 이미지와 다르게 개방적이고 전 연령의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였음.
- 시설적인 부분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1, 2층의 천장을 뚫어 도서관 전체 공간에 개방감을 주었다는 점과 2층 종합자료실 서가의 책장을 통로처럼 연출하여 여러개의 책장들과 그사이의 안락한 의자들을 지나가면 고즈넉한 창문과 풍경이 나오는 숲속의 서가 형태였음.
- 운영적 관점에서 주목할만 한 점은 트윈세대(12세-16세)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고 세계관을 설정하여 독서문화에서 멀어져 있는 세대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찾아오게 한 것과 지역 서점들과의 연계를 통해 “책콩”이라는 전주만의 독립적인 도서관 지원 사업임.
- 특히, 전주시는 이미 "전주도서관여행"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전주도서관이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전주에 12개의 시립도서관이 있고, 다양한 컨셉의 특성화도서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전주가 모든 시립도서관을 직영하기에 총괄과 연계가 수월하다는 점과 도서관을 단순히 책과 열람실이 있는 공간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하나하나의 도서관마다 각자의 철학을 담고 있기에 가능한 사업임.
- 구미시가 이번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을 계기로 구미의 도서관을 발전시켜 구미도서관이 하나의 구미문화·관광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운영의 일원화 둘째,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구성에 철학을 담기 셋째, 시민의 의견수렴 넷째, 지역서점 및 작가와의 연계가 필요함.



<책기둥도서관1>



<책기둥도서관2>



<전주시립도서관꽃심1>



<전주시립도서관꽃심2>